

# 보 도 자 료



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

◆ 홍보팀  
(팀장 이지영, 담당 강민구)  
Tel : 032-770-8630, 8631  
Fax : 032-770-8709  
◆ 2018. 9. 21. (금) 배포  
◆ 총 4쪽 (본문 2쪽, 첨부 2쪽)

## 우리의 기술로 남극 지구온난화의 현장을 지켜보다

### 극지연구소 “인공위성 관측으로 해수면 상승의 원인, 추적 관찰할 것”

- 전 지구적인 해수면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남극 빙붕 (ice shelf)의 붕괴 이후 모습을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관측한 결과가 나왔다.
- 극지연구소 (소장 윤호일)는 우리나라의 인공위성에서 관측한 정보를 바탕으로 남극의 초거대 빙산 'A-68'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.
- 빙산 A-68은 지난해 7월 남극 라센C 빙붕에서 떨어져 나온 뒤 1년 동안 주변에 머물다가 최근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했으며, 하루 1.5km 이상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.
- 분리 당시 서울의 약 10배 크기였던 면적 (5,800km<sup>2</sup>)은 5% 정도 감소했고, 빙산의 두께는 280 m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.

- 빙붕은 남극대륙을 덮고있는 빙하가 바다로 빠지는 것을 막는 자연 '방어막'으로, 빙붕의 붕괴는 급격한 해수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지구온난화의 예상 가능한 피해 사례 중 하나로 꼽히며, 붕괴가 계속되고 있는 라센C 빙붕은 전 세계 과학계의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.
- 극지연구소 북극해빙예측사업단 (단장 김현철)은 우리나라의 아리랑 5호 위성과 유럽우주국의 Sentinel-1 위성 등에서 관측한 자료로 인공위성 기반 남극 빙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(KOPRI Satellite Monitoring System for Antarctica, KOSMOS-ANT)을 구축하고 남극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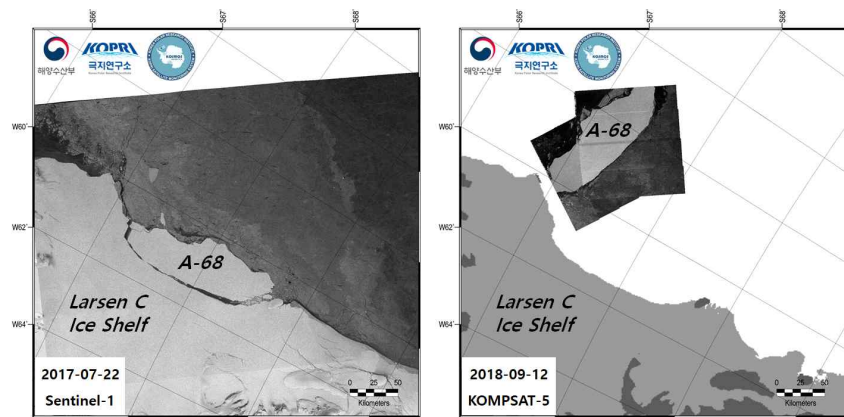
- 바닥이 해저면에 닿아있고 주변의 바다얼음, 해빙으로 둘러싸여 멈춰 있던 빙산 A-68은 라센C 빙붕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해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되며, 해빙 감소가 심해지는 남극의 여름에 북진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.
- 극지연구소 한향선 선임연구원은 “대형 빙산이 따뜻한 바다로 이동하고 소멸되는 과정은 해수면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남극 빙붕의 붕괴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”며 “빙산 A-68의 추적 관찰을 통해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 문제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”고 전했다.

첨부1. 빙산 A-68의 분리 당시와 현재 모습

첨부2. 빙산 A-68의 이동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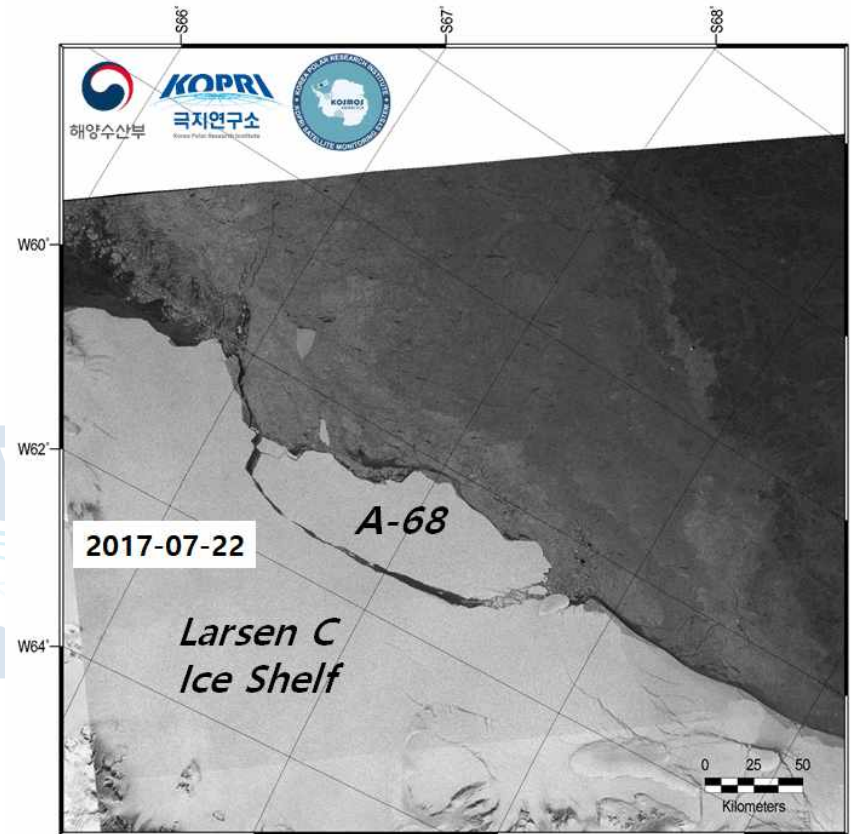
극지의 현况,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극지연구소 홍보팀 이지영 (☎ 032-770-8630) 또는 (강민구 ☎ 032-770-86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**첨부1** 빙산 A-68의 분리 당시와 현재 모습



빙산 A-68의 분리 당시 모습(2017년 7월 22일, Sentinel-1 촬영)과 최근 모습 (2018년 9월 12일, 아리랑 5호 촬영) (제공: 극지연구소 인공위성 기반 남극 빙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)

**첨부2** 빙산 A-68의 이동 모습



빙산 A-68 분리 이후 최근까지의 이동 모습 (제공: 극지연구소 인공위성 기반 남극 빙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)